

군승정체성 강화 수련회 열려

대한민국 군 포교의 주역인 군승의 정체성 확립과 사기진작을 위한 하계 수련회와 하안거 포살법회가 부산 범어사에서 열렸다.

현역 군승과 군 사찰 지원 비구니 스님 등 총 150여 명이 동참한 2010 군승 하계수련회 및 포살법회는 군포교 전문화와 군승 간 일체감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8월 31일부터 9월 2일 2박3일 일정으로 진행됐다.

군종교구장 자광 스님은 "남북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이 시기에 군승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전문화되고 체계화 된 군포교로 교구와 군 불교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東大 경주캠퍼스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총장 손종진)는 에너지공학과에 10kW용량의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고 지난 9월 1일 준공식을 개최했다.

태양광발전설비의 설치면적은 약 162㎡(50평)으로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소장 김병문)의 신재생에너지 일반보급사업의 지원으로 설치된 것이다. 발전설비는 학생들의 신재생 현장실습 교육과 에너지공학과 자체 전력 생산에 활용된다.

손종진 동국대 경주캠퍼스 총장은 "앞으로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부응하여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여 친환경 그린캠퍼스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가난의 상처 하루빨리 아물길...

생명나눔, 9월 치료비 지원 선정환자 열탕화상 박기현군

생후 7개월 때 뜨거운 목욕물에 넘어지면서 오른쪽 팔 전체에 열탕화상을 입은 기현이는 당시 새끼손가락을 절단하게 됐다. 가정형편이 어려워 화상을 입고도 적절한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지 못하고 긴급한 수술만 간간히 받다 보니, 요즘 부쩍 성장하고 있는 기현이는 몸을 지탱할 수 없게 됐다. 관절 구축으로 팔이 펴지지 않고, 뼈가 꺾어지는 상황까지 오게 됐다.

기현이 할머니(75세)는 손자의 팔이 뒤틀리게 된 것이 돈이 없어 제때 치료해주지 못한 당시 탓이라며 눈시울을 적신다. 가난 때문에 수술을 미루다가 더 이상 미루면 팔이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된다는 말에, 얼마 전 구축된 피부를 절개하고 팔을 펴는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수술비 600만원은 할머니가 감당하기에 너무 큰 비용이다. 시골에 작은 농가주택이 있어 집 걱정은 없지만, 농가부채 1천만원의 이자는 날로 늘어만 가고 수입이라고는 정부지원금 38만원이 전부인 상태라, 기현이 수술로 발생한 600만원의 수술비 마련은 엄두조차 나질 않는다.

기현이는 작은 시골마을에서



박기현(11세)군은 열탕화상으로 새끼손가락을 절단하게 되면서 팔이 펴지지 않고 뼈가 꺾어지는 상황까지 오게 됐다.

할머니와 8살 동생과 함께 살고 있다. 어머니는 5년 전 기현이 곁을 떠나 소식도 없고, 너무나 그리운 아버지도 지내고 있어 기현이네 가족은 모두 뿔뿔이 흩어졌다. 그래도 할머니는 손주를 때문에 하루하루를 버틴다고 한다. 할머니에게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기현이가 가난에 힘겨워하지 않고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오래도록 지켜봐 주는 것이다. 가난으로 얻은 상처가 행여 손주에게 큰 아픔이 될까봐 걱정하는 할머니의 가슴이 저러온다.

그런 할머니의 마음을 아는지, 기현이는 수술 후 통증이 심하고 아직 여러 차례의 수술을 더 받아야 하지만 기분만은 최고란다. 수술이 잘 돼서 앞으로 쪽 껌만 팔로 동생도 돌봐주고 좋아하는 게임

도 할 수 있다는 기대에 입가에 미소가 번진다.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꿈이라는 기현이, 가난으로 얻은 상처가 마음의 상처로 남지 않도록 기현이의 수술비 마련에 불자들의 관심과 애정이 필요하다. 후원계좌: 생명나눔 053-01-243778 예금주: 생명나눔 02)734-8050

이나은 기자

천태종 제천한방엑스포 업무협력

2일 조직위원회와 MOU 체결

천태종(총무원장 정산)은 9월 2일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위원장 이수성)와 엑스포 성공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은 천태종이 엑스포 홍보 및 관람객 유치에 힘을 쏟고, 엑스포조직위원회는 최대한의 관람객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행사에서 정산 스님은 "이웃 단양에 흥분산이 위치하는 만큼 관심을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이 이시중 충북도지사와 제천한방엑스포 업무협력 체결 후 악수를 하고 있다.

갖고 도울 방안을 고민하다 홍보를 맡기로 했다"고 협약 체결의 의의를 밝혔다.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는 9

월 16일부터 10월 13일까지 충북 제천시 왕암동에서 열린다. 53만㎡의 전시장 규모는 한방을 주제로 한 세계 최대 규모다. 조동섭 기자

전북불교대학 하계특강 개최

전북불교대학(학장 한광수)이 진행한 하계특강이 서명원 신부의 강의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전북불교대학은 7·8월동안 △웅산 스님(예산 수덕사 주지) - 내일은 또 내일의 태양이 뜬다 △대원 스님(공주 학림사 주지) - 선과 깨달음 △서명원 신부(서강대 종교학과 교수) - 선의 본질과 선 수행담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이번 특강기간 동안에는 150명이 넘는 학인들이 수강해 완산불교회관 4층 법당을 가득 메우고 학구열을 올렸다.

전북불교대학은 매년 하계·동계 특강을 실시하고 있다. 조동섭 기자

파키스탄 긴급구호기금 전달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 조계종 총무원장)은 파키스탄에 수해 재난 긴급구호기금 5만 달러를 전달했다.

자승 스님은 9월 3일 한국전통불교문화박물관 4층 집결실에서 쇼카탈리 무카담 신임 주한 파키스탄 대사에게 긴급구호기금을 전달했다.

8월 비피해를 입은 파키스탄은 2000만 여 이재민이 발생하고, 2000여 명이 사망했다. 파키스탄 대사는



"최근 반기문 UN사무총장이 자승 스님은 피해 상황을 들은 후 애도를 표하고 사회부장 혜경 스님은 "2차 긴급구호기금이 마련되는 대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언 기자

DMZ 함께 걷기 명상 행사

단절의 상징이자 천혜자원의 보고인 DMZ를 내·외국인이 함께 걷기명상을 하는 행사가 열린다.

선문화 진흥원(원장 강진규)은 9월 12일 임진각 등지에서 DMZ걷기 행사인 '지구아 미안해'를 진행한다. 사람과 사람간의 화해와 소통을 위해 '사랑의 열서 캠페인'을 1년 넘게 진행해온 선문화 진흥원은 온난화로 위기에 처한 지구와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간에 화해와 상생을 모색하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현재까지 내·외국인 300여 명이 참여의사를 밝혔으며, 일본에서 동아시아 역사를 전공하는 교수와 대학생 수십여 명이 입국해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행사 참가자는 임진각 평화누리 공원에서 정서교강 프로그램인 걷기명상과 아트메디테이션(그리기 명상), 출명상 등에 참여하게 된다. 참가 희망자는 트위터(@DMZwalk)와 임진각 평화누리 홈페이지(http://peace.ethankyou.co.kr)를 참고하면 된다. 이나은 기자

조계종구호봉사대 긴급 파견

태풍 곤파스 피해 긴급재난구호봉사

태풍 곤파스의 영향으로 도심지역과 서해안 일대의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상임이사 대오)은 9월 2일 태안지역에 긴급재난구호봉사대를 파견했다. 복지재단은 "수덕사에는 100년 이상 된 소나무 5~6그루가 쓰러졌고 흥주사에는 쓰러진 나무가 산신

각을 덮쳤다"며 "태풍으로 태안지역 사찰의 상당수가 전기가 끊기고 나무가 쓰러지고 기와가 무너지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최종환 사무국장 외 5명으로 이루어진 긴급재난구호봉사대 선발진은 현장조사를 통해 운력에 참여중인 스님들과 함께 사찰신도들을 중심으로 자체적인 봉사단을 조직해 신속한 피해복구에 대한 구체적 계획 수립과 함께 자원봉사단 파견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나은 기자

공불련 임원 템플스테이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회장 하복동)는 8월 28-29일 문경 대승사에서 창립 10주년 기념 행사를 위한 공불련 임원 및 각 기관 불자회 임원 템플스테이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

동참한 임원 및 21개 기관 불자회 임원 92명은 10월 9-10일 개최되는 공불련 10주년 행사에 적극 동참 협조하기로 결의했다. 이상언 기자

우주의 큰 빛으로 오신 관세음보살님의 메시지

몸과 마음과 영혼을 빛으로 치유한다

이 빛을 받는 자 영원히 행복하고 평화로울 지어다. 너와 내가 따로가 아니며 우리 모두가 하나라는 것을 명심하고 모두가 함께 행복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하느니라.

나는 절대적인 힘을 가진 자이며 또한 무한한 힘을 가진 자이다. 모든 것을 초월하게 하는 힘이 불기능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다.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를 바르고 끈게 자라게 하는 힘이 인간들의 마음과 정신을 정화하여 건강하게 만들며 육체 또한 건강하게 만드는 절대적인 힘이다.

개인은 물론 가정과 나라와 지구촌의 모든 인간들에게 기쁨과 행복과 평화를 주는 힘이다. 나의 힘을 光大力이라 할 것이며 이 힘을 받는 자는 나와 하나가 되고 인간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인간들에 앞장서 큰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느니라.

또한 이 빛을 받고자 하는 이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어 마음과 정신과 육체가 건강하여 기쁨과 행복과 평화로움 속에서 살지어다.

이 빛을 받고자 하는 자는 우주와 내가 하나가 되고자하는 마음의 문이 열려 있어야 하며 그 마음의 문을 열고 이 빛을 받는 자 영원히 행복하고 평화로울 지어다.

산자나 죽은 자나 영혼이 살아 있음은 분명하니 모든 인간들이 그것을 깨달아 산 자와 죽은 자의 모든 영혼들을 맑고 깨끗하게 정화하여 평화로운 이 세상을 만들어야 할 지어다.

나는 하늘과 땅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만든 빛이며 또한 모든 것들을 존재하게 하는 빛이고 힘이다.

넓고 높은 깊은 마음과 비교할 것이 없으며 모든 인간들은 늘 항상 나와 함께하며 나와 같은 마음을 지녀야 하느니라. 사랑과 자비를 인간들의 마음에 심어주는 빛이고 힘이다.

※ 우주의 빛과 통할 수 있는 방법을 전수해 드립니다.

현교 빛치유센터 원장 김건희

예약문의 : 02)568-3778 / 010-2648-3778 (오전 9시~오후 8시)

기름값의 1/5 이하로 절약되는

슈퍼에너텍 순간전기보일러



국내개발 1호!

기름값 대비 80% 이상 절감
심야전기 대비 1/2 이상 절감 효과

국내특허 제0751485호
세계특허출원 PCT/KR2007/006534

사찰·포교당·불교시설 상담 대환영!!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 시공.

사찰 전기공사 상담대환영 사찰 리모델링 상담대환영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예봉 -

상담전화 02)471-2356. 011-335-6389
www.superenertec.co.kr